

한국의 사회적 위기사건에 대한 기억특성과 사건 중심성 간 관계에서 사회적 공유의 매개효과: 지각된 직접 노출 · 간접 노출 간 다집단비교*

이 나 빈 민 문 경 안 현 의† 천 혜 정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주요 사회적 위기사건들에 대한 개인의 기억특성이 사건 중심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사회적 공유가 중요한 매개요인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검증하고, 사회적 위기사건에 직접 노출된 집단과 간접 노출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전국 성인 1065명을 대상으로 제시한 한국의 주요 사회적 사건 목록 중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사건을 정하도록 하고, 그 사건에 대한 기억특성 및 사회적 공유(Memory Experience Questionnaire), 사건 중심성(Centrality of Event Scale)을 측정 하였다. 본 연구에는 사회적 위기사건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선택한 818명의 자료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후 '자신이 선택한 사건을 직접 경험했는지'를 묻는 문항에 응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818명의 자료를 지각된 직접 노출집단(N=286)과 간접 노출집단(N=532)으로 구분하였다. 두 집단에서 연구모형에 유의한 경로계수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한 결과, 지각된 직접 노출집단에서는 생생함과 사건 중심성 간 관계에서 사회적 공유가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지 않았다. 반면, 간접 노출집단에서는 생생함이 사회적 공유를 완전 매개하여 사건 중심성에 영향을 미쳤다. 정서강도는 두 집단 모두에서 사회적 공유의 부분 매개효과가 유의했으며, 지각된 직접 노출집단에서 정서강도와 사회적 공유의 직접 관계가 더욱 높았다. 부정정서의 경우, 지각된 직접 노출집단에서는 사회적 공유가 부정정서 수준과 사건 중심성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고 있는 반면, 간접 노출집단에서는 사회적 공유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고, 직접 사건 중심성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기술하고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사회적 공유, 사회적 위기사건에 대한 기억특성, 사건 중심성, 매개효과, 다집단분석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Ewha Global Top5 Project 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NRF-2014S1A3A2038236)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교신저자: 안현의,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Tel: 02-3277-2643, E-mail: ahn12@ewha.ac.kr

IMF 외환위기, 대구 지하철 참사, 광주 민주화 운동, 세월호 사고 등 지난 50여 년 간 한국 사회에 있어왔던 크고 작은 사회적 위기사건들이 한국 사회 전반과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개인적 사건과 달리 사회적 위기사건들은 사회 구성원들이 경험의 주체 단위가 되기 때문에 동시대를 공유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지만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위기사건들이 사회 구성원들의 심리적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

물론 부정적인 사건들이 개인 심리에 미치는 결과에 대해 연구되지 않았던 건 아니며, 지금까지 많은 심리적 외상 연구 결과들을 통해 외상경험자들이 사건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변화를 이해해 볼 수 있는 지식들이 마련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적 위기사건은 그 속성상 개인외상 경험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기존의 심리적 외상 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개인 외상(예, 교통사고, 폭력피해) 연구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여 사회적 위기사건들의 심리적 영향을 이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사회적 위기사건과 같이 집단적 외상 경험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위기사건들이 이야기하는 사회 전반의 스트레스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누적되게 되면 사회를 단위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구성원들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쳐 우울, 중독, 범죄율의 증가 등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사회적 위기사건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심리적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적 위기사건이 가지는 속성 중 두 가지 측면을 중요하게 다루고자 했다.

한 가지는 간접 노출로서 사회적 위기사건의 속성을 이해해야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위기가 그 사회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매체를 통해 전해 듣는 등의

간접 노출을 통해서도 심리적 충격을 받는 이들 역시 많을 수밖에 없다. 외상이 사건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이 받는 정신적인 영향을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볼 때, 사회적 위기사건들은 그 사회에 속한 시민들에게는 충분히 외상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이다(Wilson & Keane, 2004).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의 외상연구들은 간접 노출에 대한 관심이 미흡했다. 개인이 충격적인 사건들에 직접 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경우, 이를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 간접외상 혹은 대리외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왔지만 주로 외상 피해를 입은 대상자와 만나 원조업무를 하는 실무자들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사용되는 등 상당히 제한된 방식으로 연구되어 왔다(Figley, 1995; 박지영, 2011). 아직까지 간접 외상 경험의 개념을 일반인들에게까지 확장시키는 데는 몇 가지 이유에서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 중 하나는 사회적 위기사건을 경험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간접외상과 같이 구체적인 증상을 겪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즉, 일반시민들이 사회적 사건으로 인해 어떤 심리적 영향을 받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증상이 아닌 다른 측면들을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은 사회적 위기사건이 그 사회에 속한 개인들의 삶과 정체성을 변화시킬 만큼 개개인에게 중요한 경험으로 인식되는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접 노출자들과 직접 노출자들의 경험을 비교하여 사회적 위기사건들로 인한 심리적 영향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위기사건이 직접 노출자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간접 노출자들의 심리적 삶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만큼 영향력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개인의 심리내적 과정을 넘어선 다른 차원의 변인들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인외상 연구들이 주로 직접 노출자들의 심리증상 완화를 목표로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심리내적 요인으로 구성된 모형을

검증하려는 시도가 많았다(Briere, Elliott, Harris & Cotman, 1995; Dagleish, Meiser-Stedman & Smith, 2005). 그러나 심리내적 과정에만 주목하는 것은 사회적 위기사건들이 가진 사회적 과정이나 반응 등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사회적 위기들이 개인에게 어떤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지 그 메커니즘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보다 사회적 혹은 관계적 속성을 가진 요인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적 위기는 그 속성상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간접 노출자들 역시 대규모로 발생시킨다. 사람들은 타인이 자신과 동일한 경험을 했다고 판단되면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공유하게 되며, 특히 사회적 위기사건들은 미디어 등의 매체를 통해 사람들에게 활발히 공유되기도 한다. 현대사회로 올수록 개인 간 정보와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통로가 점차 많아짐에 따라 사회적 위기사건들이 간접 노출자들의 심리적 현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공유(Social Sharing)는 사람들이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한 명 이상의 사람과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그 때문에 야기된 신체·심리적 반응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수용하기 등과 같은 개인 내적 자원만을 이용하지는 않는데,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관계없이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과 그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공감과 지지를 받으면서 경험 및 사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기도 하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는 정서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실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 중 80-95%를 사회적으로 소통하고 공유한다고 알려져 있다(Rimé, Philippot, Boca & Mesquita 1992).

본 연구는 사회적 위기사건들이 개인의 심리적 현실을 변화시키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사회적 위기의 직접 노출자와

간접 노출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위기에 대한 기억특성, 사회적 공유, 개인의 정체성 변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 중심성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사건 자체보다 사건에 대한 기억이 개인의 심리적 현실을 구성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근거로 사회적 위기가 간접 노출자들의 심리적 현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때 심리적 현실을 개인의 정체성이 동화와 조절 과정을 통해 변화되고 통합된 결과라고 볼 때, 기억은 사실로서의 현실과 심리적 현실을 이어주는 중요한 매개물이자 자신의 경험, 사고, 행위가 자기 정체성의 기반이 되도록 만드는 재료라 할 수 있다(Stern, 2000). 사회적 위기사건들에 대한 기억 역시 각 개인의 정체성 통합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사건 중심성이란 개념을 통해 이해해 보고자 한다.

사건 중심성(Centrality of event)은 사건에 대한 기억이 개인적 삶과 정체성에 중심적 이야기로 위치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초기연구에서는 사건 중심성에 대한 개념을 주로 외상과 같은 부정적 사건을 경험한 후 그와 관련된 기억을 중심으로 삶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경향으로 이해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건 중심성이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특정 사건의 영향으로부터 개인의 적응과 부적응을 결정하는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Schuettler & Boals, 2011).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사건 중심성이 증상 수준과 유의한 정적 관련이 있었지만, 비임상 집단의 경우나 일상의 부정적 스트레스 사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건 중심성이 외상 후 성장, 그리고 외상 후 증상 모두와 유의한 정적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기도 했다(Berntsen & Rubin, 2006; Boals, 2010; Rubin, Feldman & Beckham, 2003; Boals, & Schuettler, 2009). 특히 Berntsen와 Rubin(2006, 2007) 등과 같은 연구자는 부정적 사건에 대한 기억이 한 개인의 정체성과 삶의 이

야기에 중심축이 되는 것이 사건 후 반응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특정 사건이 한 개인의 정체성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면 고통스러운 기억에 접근하기 쉬워지고 더욱 생생하게 만들어 기억을 처리하고 의미 부여하는 과정을 촉진하며, 부정적 경험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할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게 한다고 언급하였다(Berntsen & Rubin, 2006, 2007). 즉, 사건 중심성은 개인이 얼마나 사건에 대한 의미를 재구성해 가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지표로 여겨지며, 사건 중심성이 높을수록 사건에 대한 의미부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위기 사건이 개인의 삶과 정체성에 의미 있는 사건으로 자리 잡았음을 확인하는 지표로서 사건 중심성 수준을 사용하여 사건에 대한 기억특성이 사건 중심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사회적 위기 당시, 공동된 시공간을 공유했던 많은 시민들은 사건에 대한 개인적 기억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어떤 이들은 특정 사건에 직접 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그 사건을 자기 삶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기기도 하며, 어떤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자신의 정체성을 변화시킬 만큼 의미 있는 일이라고 회상할 수도 있다. 특히 사건에 대한 기억이 보다 생생하거나 강렬한 정서를 야기할수록 사건을 반추하거나 의미있는 방식으로 재구성할 기회 역시 증가되기 때문에 그 사건이 개인적 삶에 중요한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것이다(Rimé, Philippot, Boca & Mesquita, 1992; Finkenauer & Rimé, 1998). 즉, 기억특성은 사건 중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양한 기억특성 중에서도 본 연구는 생생함, 정서강도, 부정 정서가, 공유를 평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억특성을 평가하는 도구인 MEQ는 생생함, 일관성, 접근성, 신체 감각, 정서강도, 시점, 시기, 거리두기, 정서가 등 10가지 기억특성 요인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생생함, 일

관성, 접근성, 시기 요인이 통계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매우 큰 상관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의 요인으로 묶일 수 있다고 보았고, 내적 일치도 값이 가장 크고 대표성이 있다고 본 생생함 요인을 평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였다. 둘째, 신체 감각(예, 그 기억을 떠올리면 온 몸으로 느껴지는 것 같다.), 시점(예, 기억 속에서 나는 나의 눈을 통해 그 경험을 본다), 거리두기(예, 그 기억을 회상하면, 나는 “저건 지금의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와 같은 요인은 직접 노출한 사건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문항들로만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배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기억특성과 사건 중심성 간의 관계를 ‘사회적 공유’ 요인이 매개한다고 보았으며 이는 MEQ 하위 척도 중 ‘공유’요인으로 측정되었다. ‘공유’는 사실 기억특성이라기보다 기억을 재구성하고 기억과 관련된 정서를 조절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특정 사건을 회상하게 되면, 그 기억과 관련 정서를 다시 경험하게 되고 이를 조절하는 전략으로서 타인과 정서를 공유하는 행동이 강화될 수 있다(Rimé, Mesquita, Philippot & Boca, 1991; Luminet, Bouts & Delie, 2000). 사건을 회상했을 때 여전히 강렬한 정서를 경험할수록 사회적 공유 역시 촉진된다는 의미는 정서 경험을 통합하는 전략으로서 사회적 공유가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사건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떠올릴수록 관련 정서 역시 함께 촉발되어 이를 조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적 공유가 활발해질 수도 있다(Finkenauer & Rimé, 1998), 또한 사건에 대한 기억이 부정 정서를 야기할수록 사회적 공유 수준 역시 함께 증가하며,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건보다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에 이를 공유할 수 있는 타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는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다(Croonenbergh, Rime, Boca & Philippot, 1990; Rimé et al., 1991; Rimé, 2007, 2009).

대인 간 수준에서는 공유한 사람과의 정서적 전염, 공감, 애착, 사회적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 사건과 관련한 사회적 지식을 구성하고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된다(Rimé, Finkenauer, Luminet, Zech & Philippot, 1998; Christophe & Rimé, 1997; Stiles, 1987). 개인 간 수준에서도 사회적 공유는 사건에 대한 기억을 재구성하고 공고화함으로써 정서적 기억을 처리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급성 스트레스에 적응할 수 있는 인지적, 정서적 과정을 촉진함으로써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의미를 형성하도록 돕는다(Rimé, 2009; Lepore, Ragan, & Jones, 2000; Nils & Rimé, 2012; 이주일 외, 1997). 정서적 사건을 공유했을 때와 공유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한 Finkenauer와 Rimé(1998)의 연구에서도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사회적 공유는 개인의 정체성 통합과정에도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기존 연구에 따르면 사적 경험을 이야기(narrative)로 조직하여 타인과 공유하는 일은 도리어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하고 의미를 재발견하는 과정을 촉진시켜서 기존의 이야기를 변형하는 기능을 한다. 정체성의 통합 과정이 끊임없이 조절과 동화를 통해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때, 사회적 공유는 개인이 새로운 경험을 기존의 경험으로 동화하거나 기존의 경험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으로 사용되는 것이다(Steffen, 1997). 또한 정체성이라는 것이 장면, 인물, 주제, 맥락의 정보를 지닌 완성된 이야기로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공유는 기존의 이야기를 지지하거나 변화시킴으로써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McAdams, 1996). 이처럼 사건에 대한 기억과 사회적 공유, 정체성 통합과정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사건 중심성 변인 들은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개인의 심리적 현실을 구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발생해 왔던 위기사건들을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런 기억이 어떤 과정으로 개인의 심리적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

기 위해 관련 요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론에 기반한 구조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 연구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사건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사건 그 자체보다 사건에 대한 기억을 통해 전달된다는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사회적 위기사건들에 대한 기억특성(생생함, 정서강도, 부정 정서)이 사건 중심성과 맺는 관계를 확인하고, 그 관계를 '사회적 공유'라는 보다 관계적 속성을 가진 요인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둘째, 사회적 위기사건을 직접 노출한 집단과 간접 노출된 집단의 경험이 어떻게 다른지를 직접 비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억특성과 사회적 공유, 사건 중심성 간의 관계 모형을 각 집단에서 검증하고, 두 집단을 직접 비교하여 관계 모형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사회적 위기사건들이 개인에게 주는 심리적 영향을 이해하는 기초적인 경험적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한국 사회가 집단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회복을 논하고 집단적 의미를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사회적 공유가 어떤 경우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한국 사회 내에서 잊혀 지지 않아야 할 사회적 위기사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을 지속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후속 연구들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 참여자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전국 20대에서 60대를 대상으로 데이터 수집기관을 통하여 온라인 서베이를 실시하였다. 온라인을 통해 설문지를 제시하기 전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

하고, 동의하는 사람에 한해서 설문이 이루어졌다. 연령별, 성별, 지역별 할당을 적용하여 특정 대상에 편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온라인 조사를 위해 설문지를 웹페이지 형식으로 설계 하였으며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에게 소정의 적립금을 제공하여 참여의 동기를 높이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1065명의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이 중 서울올림픽, 한일 월드컵과 같은 긍정적인 사회적 사건이 아닌 사회적 위기사건 유형을 선택한 818명의 데이터만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들이 선택한 사회적 위기사건들은 4.19혁명 19명(2.3%), 5.16군사쿠데타 23명(2.8%), 월남파병 3명(0.4%), 10월 유신 1명(0.1%), 부마항쟁 5명(0.5%), 10.26 박정희시해 55명(6.7%), 12.12 전

두환 쿠데타 10명(1.2%), 5.18 광주민주화 108명(13.2%), KAL기 폭파사건 4명(0.5%), 6월 민주항쟁 21명(2.6%), 성수대교 붕괴 8명(1.0%), 삼풍백화점 붕괴 29명(3.5%), IMF 외환위기 211명(25.8%), 대구 지하철 화재 37명(4.5%),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21명(2.6%), 노무현 대통령 서거 173명(21.1%), 천안함 침몰 91명(11.1%)이었다. 818명의 데이터 중 “선택한 사건이 자신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란 질문에 “내가 직접 겪었다.”에 “예”라고 응답한 집단을 ‘직접 겪었다’(286명)로 분류하였고,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친구, 가족이나 친척이 겪었다고 전해 들었다.” 혹은 “TV, 신문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접했다”에 “예”라고 응답한 집단을 ‘간

표 1. 사회적 위기사건 유형의 분포

사회적 위기사건 유형	직각된 직접 노출		간접 노출	
	N	%	N	%
1) 4·19 혁명 (1960년)	3	1.0	16	3.0
2) 5·16 군사 쿠데타 (1961년)	2	.7	21	3.9
4) 월남 파병 (1964-73년)	1	.3	2	.4
5) 10월 유신(1972년)	0	0	1	.2
6) 부마항쟁 (1979년)	3	1.0	1	.2
7) 10. 26 박정희 시해 (1979년)	11	3.8	44	8.3
8) 12·12 전두환 쿠데타 (1979년)	5	1.7	5	.9
9) 5·18 광주 민주화 운동 (1980년)	24	8.4	84	15.8
10) KAL기 폭파 사건 (1987년)	0	0	4	.8
11) 6월 민주항쟁(1987년)	9	3.1	12	2.3
13) 성수대교 붕괴 (1994년)	1	.3	7	1.3
14) 삼풍백화점 붕괴 (1995년)	2	.7	27	5.1
15) IMF 외환 위기 (1998-01년)	159	55.6	52	9.8
17) 대구 지하철 화재 (2003년)	2	.7	35	6.6
18) 미국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2008년)	11	3.8	10	1.9
19) 노무현 대통령 서거 (2009년)	52	18.2	121	22.7
20) 천안함 침몰 (2010년)	1	.3	90	16.9
합계	286	100.0	532	100.0

집’(532명)으로 분류하였다. 실제 응답자들이 보고한 사회적 위기사건 유형들의 분포를 지각된 직접 노출과 간접으로 분류하면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직접을 ‘지각된 직접’이라고 명명한 이유는, “직접 겪었다”라고 보고된 경험이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서거의 경우는 엄밀한 의미에서 직접 노출자가 발생하기 어려운 위기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개인적 삶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지각하고 또 직접 노출했다고 보고한 응답자들이 상당수(N=52) 있었다. 연구자들은 ‘직접 노출’에 내포되어 있는 현상학적 의미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응답자들이 스스로 지각한 경험 방식에 근거하여 집단을 분류하였다.

현상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경험은 지각과 판단의 모든 복잡성을 고려한 결과로 보며, 객관적인 실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현상에 대한 개인의 지각이 그 현상에 반응하는 방식을 결정한다고 본다(이종관, 2003; Green, 2004).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집단 분류 기준을 ‘스스로 지각하기에 자신이 사건에 얼마나 관여되었는지 정도’로 정의 내렸다. 이와 더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사건에 대해 직접 노출했다고 지각하는 집단과 간접 노출했다고 지각하는 집단 간 주기억특성과 사건 중심성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t-test 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부정 정서가를 제외하고 모든 변인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건을 ‘직접 노출했다’라고 보고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평균값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로써 ‘지각된 직접 노출’과 ‘간접 노출’이라는 분류기준의 경험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분석된 데이터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살펴보면, 남자는 406명(48%), 여자는 440명(52%)였으며, 연령은 20세부터 69세까지 평균 39.66세 (SD=12.04)였고, 학력은 대졸, 고졸, 대학원 이상, 중졸 이하 순으로 많았다. 출신지역은 경상도, 전라도, 서울, 경기도 및 인천,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 지역 순으로 많았다.

측정도구

사건 목록지

사건 목록지는 황정민, 양진경(2002) 연구와 ‘국사 편찬위원회 한국역사용어 시소로스’를 참고하여 연구진 4명이 논의를 통해 1차로 구성하였으며 사전연구로 15명에게 설문을 진행하여 추가 또는 제거할 사회적 위기를 정리하였다. 이 후 연구진이 다시 논의 하여 최종적으로 20개의 한국 사회 내 사회적 사건 목록을 선정하였다. 20개의 사건은 모두 1960년대 이후에 발

표 2. ‘노무현 대통령 서거’ 사건에서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

	지각된 직접 노출	간접 노출	df	t	Sig.
	(N=52)	(N=121)			
	평균(SD)	평균(SD)			
사건 중심성	3.06(0.77)	2.78(0.80)		2.160*	.032
사회적 공유	4.04(0.61)	3.64(0.78)		3.261**	.001
부정 정서가	1.94(0.91)	2.18(0.98)	171	-1.535	.127
생생함	4.38(0.59)	4.12(0.64)		2.460*	.015
정서강도	4.46(0.65)	4.09(0.71)		3.188**	.002

* $p < .05$ ** $p < .01$ *** $p < .001$

생한 것으로 이는 최고령 연구 참여자가 적어도 초기 성인기 이후에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제한하기 위해서였다. 구체적으로는 4·19 혁명, 5·16 군사 쿠데타, 한일협정, 월남 파병, 10월 유신, 부마항쟁, 10. 26 박정희 시해, 12·12 전두환 쿠데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KAL기 폭파 사건, 6월 민주항쟁, 서울올림픽,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IMF 외환위기, 한일 월드컵, 대구 지하철 화재, 미국최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 노무현 대통령 서거, 천안함 침몰이며, 시간 순서로 나열하였다. 사건 용어는 ‘국사 편찬위원회 한국역사용어 시소로스’와 ‘황상민, 양진영(2002)’를 참고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사건 목록지를 통해 제시된 많은 사회적 사건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사건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우선은 사건 목록 중 5가지를 선택하게 한 후 그 중에서 최종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후 ‘당신이 선택한 사건을 떠올리며 해당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라는 문장을 제시하여 연구 참여자가 최종 선택한 사회적 위기에 대해 기억특성, 사회적 공유 수준, 사건 중심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사회적 위기사건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서울올림픽, 한일 월드컵 사건을 제외한 위기사건들을 선택한 818명의 자료만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사건에 대한 기억특성

기억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Sutin과 Robins (2007)이 개발하고 안현의 외(2013)가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기억경험질문지(Memory Experience Questionnaire; 이하 MEQ)의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10개의 기억특성을 측정하는 63개 문항으로 구성된 기억경험질문지 중 생생함(visibility; 6문항; 예, 이 사건에 대한 내 기억은 매우 생생하다. 이 사건에 대한 내 기억은 매우 모호하다.), 정서강도(emotional intensity; 6문항; 예, 그 사건과 관련한 내 감정들은 매우 강렬하다. 나는 그 기

억에 관해 강한 감정들이 느껴지지 않는다.), 정서가(valence; 6문항; 예, 그 기억의 전반적인 톤은 부정적이다. 이 기억에서 묘사된 그 경험은 긍정적이다.)의 3개 기억특성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하위척도의 6문항 중 세 문항은 역채점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생함과 정서강도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원척도에서 정서가는 점수가 높을수록 사건 경험을 긍정적인 느낌으로 기억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보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기의 부정적 정서경험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긍정 정서가 세 문항을 역채점하여 ‘부정 정서’로 명명하였다.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생생함 .932, 정서강도 .933, 부정 정서가 .973이다.

사회적 공유

사회적 공유는 Sutin과 Robins(2007) 자서전적 기억의 현상학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기억경험질문지(MEQ)의 하위척도 중 공유하기(sharing; 6문항; 예, 나는 이 기억을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자주 나누어 왔다.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나는 이 사건에 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해왔다.) 하위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공유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896이었다.

사건 중심성

Bernsten 과 Rubin(2006)이 개발하고 조명숙, 이영호(2011)가 한국판으로 타당화 한 사건 중심성 척도(Central event scale; 이하 CES)는 살아오면서 경험한 충격적 사건을 떠올리면서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는(1=전혀 일치하지 않음, 5=정확히 일치함) 20개의 문항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하위 척도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

는데, 세 하위요인의 총 합산 점수가 클수록 해당 요인의 속성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해석한다.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한 기억이 현재 경험을 이해하고 처리하는 준거로 고려되는 정도인 판단기준점(reference point; 예, 이 사건은 내가 다른 경험들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 사건 전후로 개인 삶의 흐름이 얼마나 변화되었으며 개인의 관점, 가치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정도를 의미하는 전환점(turning point; 예, 이 사건은 내가 살아온 이야기의 중심에 있다), 사건 경험이 개인의 정체성과 연결되고 통합된 정도를 의미하는 정체성의 핵심적 요소(central component of personal identity; 예, 나는 내 자신과 세상을 이 사건에 비추어 이해한다.)가 그것이다(Boals, 2010; Schuettler, & Boals, 2011).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세 하위요인들을 구분하지 않고 총 합산 점수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사건 중심성 변인을 구성하였으며, 내적 일치도는 .957이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18과 Amos 18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 변인의 정규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술 통계 분석을 한 후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변인 간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이 후 기억특성과 사건 중심성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공유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였다. 각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 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살펴보았다. CFI와 TLI지수는 일반적으로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간주되고, RMSEA지수는 <.05이면 좋은 적합도, <.08이면 보통 적합도, >.10 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를 나타낸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이 후 최종모형의 간접효과 및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Sobel 검증(Sobel, 1982)을 실시하였다. 마

지막으로 사회적 공유의 매개모형의 적합도 및 매개효과 크기가 직접 과 간접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지각된 직접 노출집단과 간접 노출집단에서 각 변인들의 기술 통계 및 상관 분석

기억특성과 사건 중심성 경향 간 관계에서 사회적 공유의 매개효과 여부를 검증에 앞서 자료의 정상성을 검증하기 위해 각 집단별로 측정 변인의 왜도와 첨도, 평균 및 표준편차, 그리고 변인 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평균과 표준편차는 지각된 직접 노출집단에서 3.12~4.23 (SD=.63~ 1.15), 간접 노출집단에서 2.70~3.77 (SD=.72~1.11)의 범위를 보였다(표 4 참고). 상관 분석 결과, 지각된 직접 노출집단에서 사건 중심성은 생생함과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정서강도와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사회적 공유는 부정 정서가를 제외하고 사건 중심성, 생생함, 정서강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간접 노출집단에서 사건 중심성은 생생함, 정서강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부정 정서가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사회적 공유 역시 생생함, 정서강도, 부정 정서가, 사건 중심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표 5 참고).

문항 꾸러미 제작

모형 검증에 앞서서 각 척도별로 문항 꾸러미(Item parcels)을 구성하여 측정변수를 만들었다. 단일 차원 수준 자료의 경우 문항 꾸러미를 만드는 것이 더 좋은 모형 적합지수를 산출한다(Bandalos, 2002). 이에 원칙도에 하위요인이 있는

표 3.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지각된 직접 노출(286)	간접 노출(560)
성별	남자	176 (61.5)	230 (41.1)
	여자	110 (38.5)	330 (58.9)
연령	Mean	42.16세(SD= 11.50)	38.38세 (SD= 12.15)
학력	중졸이하	2(0.7)	7 (1.3)
	고졸	54(18.9)	154(27.5)
	대졸	188(65.7)	355(63.4)
	대학원 이상	42(14.7)	44(7.9)
출신지역	서울 및 경기도, 인천	52(18.2)	81(14.5)
	경상도	66(23.1)	113(20.2)
	충청도	48(16.8)	80(14.3)
	전라도	59(20.6)	122(21.8)
	강원도	38(13.3)	92(16.4)
	제주도	23(8.0)	72(12.9)

표 4.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변인	평균 (SD)		t	Sig.
	지각된 직접 노출 (N=286)	간접 노출 (N=532)		
생생함	4.23(0.63)	3.75(.80)	9.415***	.000
정서강도	4.05(.73)	3.77(.80)	5.416***	.000
부정 정서가	3.67(1.15)	3.45(1.11)	-3.301***	.000
사회적 공유	3.66(0.76)	3.50(.73)	3.728***	.000
사건 중심성	3.12(.76)	2.70(.72)	8.000***	.000

*** $p < .001$

표 5.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지각된 직접 노출(N= 286), 간접 노출(N=532)						
	1	2	3	4	5	왜도	첨도
1 사건 중심성	1	.28**	.45*	-.02	.54**	-.38	.11
2 생생함	.18**	1	.62**	.09	.42**	-1.10	1.93
3 정서강도	.33**	.61**	1	.13*	.61**	-.55	-.15
4 부정 정서가	-.18**	.17**	.19**	1	-.04	-.88	.13
5 사회적 공유	.41**	.45**	.60**	.15**	1	-.51	.29
왜도	-.24	-.72	-.51	-.41	-.29		
첨도	-.16	.76	.37	-.48	.02		

* $p < .05$ ** $p < .01$ 대각선 아래 간접 노출, 대각선 위 지각된 직접 노출.

사건 중심성을 제외하고 생생함, 정서강도, 부정 정서가를 각각 3개의 문항 꾸러미로 만들었다. 각 문항 꾸러미들은 잠재변수에 대해 유사한 수준의 요인 부하량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뒤 요인 부하량의 평균이 유사하도록 문항 꾸러미에 할당하였다. 또한 문항 꾸러미를 지정하기 위해 각 요인의 단일차원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잠재변인의 내적일관성을 측정하는 개념 신뢰도(CR)와 평균분산추출지수(AVE)를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신뢰도 수준은 개념 신뢰도 0.7 이상, AVE 0.5 이상으로 보는데(Hair et al, 2010) 본 연구에서 개념 신뢰도는 0.93~0.98 으로 나타나 각 요인들의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었으며, 분산추출지수는 0.75~0.95로 나타나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신뢰롭게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검증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모형과

자료간의 일치 정도를 나타내는 χ^2 적합도 지수 외에 TLI, CFI, RMSEA을 적합도 지수로 선정하였다. 측정 변인 모두 정규 분포 가정을 만족하였으므로 이후 구조모형 검증에서도 모수 추정을 위해 최대 우도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표 6와 같이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부스트래핑과 Sobel 검증을 통해 사회적 공유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생생함과 사건 중심성, 부정 정서가와 사회적 공유 간의 직접적인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했다(표 7 참고).

Sobel 검증을 통해 생생함, 정서강도가 사건 중심성의 관계에서 사회적 공유가 갖는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사회적 공유는 생생함과 사건 중심성 관계를 유의하게 완전매개하고 있었고($z = 1.96, p < .05$) 정서강도와 사건 중심성의 관계는 유의하게 부분 매개하고 있었다($z=8.04, p <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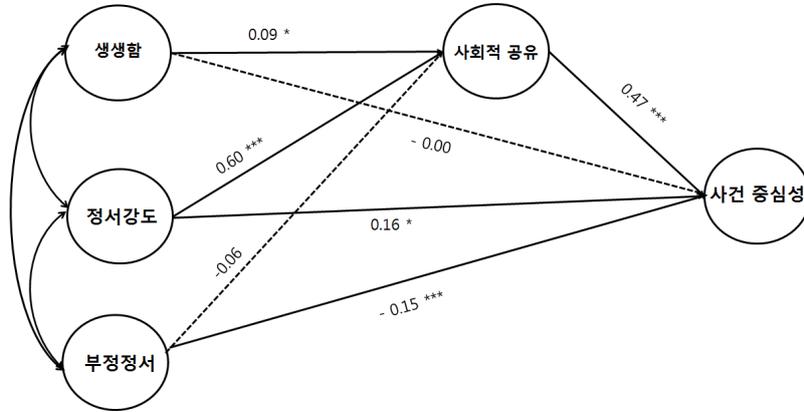
표 6.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chi^2(df)$	TLI	CFI	RMSEA
연구모형	232.517(80)	.985	.989	.048

표 7. 연구 모형의 모수 추정치

경로	B	S.E	β
생생함 -> 사회적 공유	.08*	.04	.09
생생함 -> 사건 중심성	-.00	.04	-.00
정서강도 -> 사회적 공유	.54***	.04	.60
정서강도 -> 사건 중심성	.15**	.05	.16
부정 정서가 -> 사회적 공유	-.04	.02	-.06
부정 정서가 -> 사건 중심성	-.11***	.02	-.15
사회적 공유 -> 사건 중심성	.50***	.05	.47

* $p < .05$, ** $p < .01$, *** $p < .001$



* $p < .05$, ** $p < .01$, *** $p < .001$, 그림에 제시된 계수들은 표준화된 경로계수임

그림 1. 기억특성(생생함, 정서강도, 부정정서), 사회적 공유 및 사건 중심성의 관계

지각된 직접 노출 및 간접 노출에 따른 다집단 분석

앞의 분석에서 검증된 매개 모형에서 직간접 노출집단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다집단 분석을 하였다.

우선 각 집단의 요인구조 틀이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해 형태 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을 검증하였다. 적합도는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chi^2 = 302.166$, $TLI = .986$, $CFI = .989$, $RMSEA = .033$). 이후 측정동일성(metric invariance)모형과 형태동일성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두 모형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Delta\chi^2 = 18.34$, $\Delta df = 10$). 이로써 두 집단에서 잠재변인과 측정변인 간의 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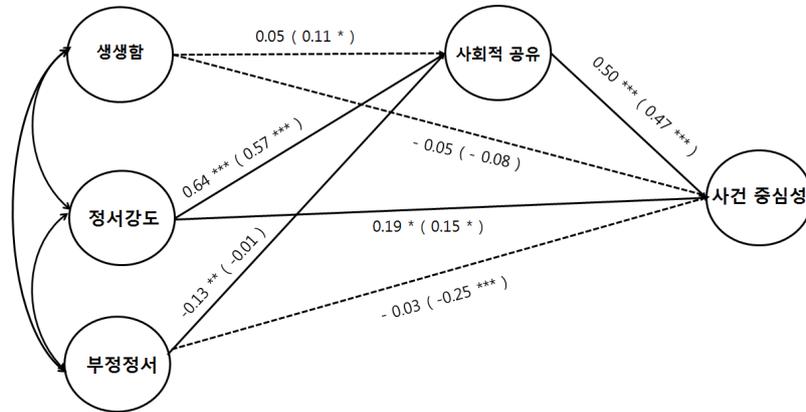
주요 변인들의 측정 동일성 가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이후 두 집단 간 경로계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형 내에 존재하는 경로계수 각각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집단 간 등가제약 모형을 측정동일성 모형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집단 간 등가제약 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에서 χ^2 와 df 값의 차이가 유의했다($\Delta\chi^2 = 22.944$, $\Delta df = 7$, $p < .000$). 이후 각 경로별로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과 기저모형의 카이제곱 차이를 통해 집단별로 경로계수 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정서강도에서 공유수준으로 가는 경로와 부정정서가 사건중심경향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Delta\chi^2 = (1, N=818) = 4.261$, $p < .05$; $\Delta\chi^2 = (1, N=818) = 11.499$, $p < .001$). 따라서 최종 모형

표 8. 지각된 직접 노출집단과 간접 노출집단에서의 동등성 검증에 대한 적합도 지수 (N=818)

	χ^2	df	TLI	CFI	RMSEA
모형1: 형태동일성 제약	302.266	160	.986	.989	.033
모형2: 측정동일성 제약	320.606	170	.986	.989	.033
모형3: 집단 간 등가제약	343.550	177	.985	.987	.034
최종모형	326.265	175	.986	.988	.033

표 9. 기저모형과 집단 간 등가제약 모델 간의 집단 차이 비교

동일성 제약을 가한 경로	Δdf	$\Delta \chi^2$	ΔTLI
생생함 -> 사회적 공유	1	0.182	.000
생생함 -> 사건 중심성	1	0.052	.000
정서강도 -> 사회적 공유	1	4.261*	.000
정서강도 -> 사건 중심성	1	0.354	.000
부정 정서가 -> 사회적 공유	1	3.85*	.000
부정 정서가 -> 사건 중심성	1	11.500***	.001
사회적 공유 -> 사건 중심성	1	.021	.000
모든 경로에 동일성 제약	7	22.744	.001



* $p < .05$, ** $p < .01$, *** $p < .001$, 경로계수(표준화계수): 지각된 직접 (괄호 안은 간접)

그림 2. 최종구조모형의 집단별 구조계수 추정치

표 10. 최종 모형에 대한 구조계수 추정치

모수	지각된 직접 노출		간접 노출	
	B(S.E)	β	B(S.E)	β
생생함 -> 사회적 공유	.05(.08)	.05	.09(.04)*	.11
생생함 -> 사건 중심성	-.06(.08)	-.05	-.08(.05)	-.08
정서강도 -> 사회적 공유	.65(.07)***	.64	.49(.05)***	.57
정서강도 -> 사건 중심성	.20(.09)*	.19	.14(.06)*	.15
부정 정서가 -> 사회적 공유	-.09(.03)**	-.13	-.01(.03)	-.01
부정 정서가 -> 사건 중심성	-.02(.04)	-.03	-.18(.03)***	-.25
사회적 공유 -> 사건 중심성	.52(.08)***	.50	.50(.06)***	.47

* $p < .05$, ** $p < .01$, *** $p < .001$

은 이 두 경로의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으로 확정되었으며, 이 모형의 적합도는 표 8에 제시하였다.

최종 모형에서의 집단 간 경로계수 차이는 그림 2에 제시하였으며, 각 경로의 값은 표 10에 제시하였다. 비록 경로계수에 있어서는 생생함과 사회적 공유 간의 직접 경로에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경로계수 동일성 제약 결과 그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집단별 매개효과 검증

최종 모형에서 변수들 간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각된 직접 노출집단의 경우에는 생생함 경로를 제외한 정서강도, 부정정서 모형에서 사회적 공유의 유의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z=6.80, p<.001$; $z=-2.87, p<.001$). 간접 노출집단의 경우에는 생생함, 정서강도 모형에서 사회적 공유의 매개효과가 유의했으며, 전체적으로 지각된 직접 노출집단보다 사회적 공유의 매개효과가 더 높았다($z=2.20, p<.001$; $z=7.00, p<.001$)(표 11 참고).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주요 사회적 위기들이 어떤 경로로 개인의 삶과 정체성 통합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기 위해 관련 요인들 간

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론에 기반한 구조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어떤 사건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사건 그 자체보다 사건에 대한 기억을 통해 전달된다는 기존 연구들을 근거로 사회적 위기 사건들에 대한 기억특성(생생함, 정서강도, 부정 정서가)이 사건 중심성과 맺는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그 관계를 ‘사회적 공유’ 요인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하였다(Rubin, 2005). 더불어 사회적 위기를 간접 혹은 직접 노출한 집단들의 경험이 어떻게 다른지를 다집단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직접과 간접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대상으로 기억특성과 사건 중심성 간의 관계를 사회적 공유가 유의하게 매개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사회적 공유가 생생함과 사건 중심성 간 관계는 완전 매개를 하고 정서강도와 사건 중심성 간의 관계는 부분 매개한 반면, 부정 정서가와 사건 중심성 간의 관계는 유의하게 매개하고 있지 않았다. 즉, 위기사건에 대한 기억특성은 사회적 공유라는 관계적 속성을 가진 행위를 통해 사건 중심성을 촉진하고 있었으며, 특히 생생하고 정서적으로 강렬하게 남아 있는 기억은 사회적 공유를 통해서 사건 중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사회적 위기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려진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사건 중심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기는 어려운 반면, 생생한 기억들을 타인과 공유하는 과정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적 위기사건에 대한 경험을 자신의 삶과 정체성에 중심요소로 위치시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표 11. 최종 모형의 간접효과

독립	경로			sobel test(z)	
	매개	종속	지각된 직접 노출	간접 노출	
생생함	→ 사회적 공유 →	사건 중심성	0.62	2.20***	
정서강도	→ 사회적 공유 →	사건 중심성	6.80***	7.00***	
부정 정서가	→ 사회적 공유 →	사건 중심성	2.87***	-0.33	

정서적 강렬함은 사회적 공유를 거치지 않고도 사건 중심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다. 부정 정서가의 경우는, 사회적 공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으며, 사건 중심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다. 특히 사건을 보다 덜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사건 중심성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둘째, 앞에서 확인한 기억특성, 사회적 공유, 사건 중심성 간의 관계 모형이 지각된 직접 노출집단과 간접 노출집단에 따라 다른지 그리고 경로계수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해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경로 동일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각된 직접 노출집단에서는 생생함과 사건 중심성 간 관계에서 사회적 공유가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지 않았다. 더욱이 생생함은 사건 중심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 즉, 사회적 위기사건에 대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회상할 수 있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과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건 아니었으며, 그 사건을 개인적 삶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과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간접 노출집단에서는 생생함이 사회적 공유를 매개하여 사건 중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 매개 효과가 유의했다. 간접 노출집단에서는 사회적 위기사건을 얼마나 생생하고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사회적 공유를 촉진함으로써 사건에 대해 개인적인 의미부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정서강도는 두 집단 모두에서 사건 중심성에 직접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유를 부분 매개하여 사건 중심성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러나 직접 노출집단에서 정서강도와 사회적 공유의 지각된 직접경로가 간접 노출집단에서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는데, 이는 사회적 위기사건을 직접 경험했다고 지각하는 집단에서 정서적 강렬함을 많이 느낄수록 이를 주변 사람들과 활발하게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부정정서의 경우에는 두 집단 간 차이

가 있었는데 지각된 직접 노출집단에서는 사건을 보다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사회적 공유가 유의하게 낮아지고 그에 따라 사건 중심성도 감소하는 반면, 간접 노출집단에서는 부정정서 수준과 사회적 공유가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또한 지각된 직접 노출집단에서는 부정정서 수준이 사건 중심성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던 반면, 간접 노출집단에서는 보다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사건 중심성은 감소하고 있었다. 즉, 지각된 직접 노출집단에서는 사회적 공유가 부정정서 수준과 사건 중심성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고 있는 반면, 간접 노출집단에서는 사회적 공유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고, 직접 사건 중심성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부정 정서가 높을수록 공유 수준 역시 함께 증가하며,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건보다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에 이를 공유할 수 있는 타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는다고 알려져 있는데(Croonenbergh et al., 1990; Rimé et al., 1991; Rimé, 2007, 2009), 사회적 위기사건의 지각된 직접 노출집단과 간접 노출집단의 경험을 구분한 본 연구 결과는 이와 일치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가 기존의 연구결과와 불일치한 이유 중 하나는 사회적 공유의 수준과 방식이 문화적 특성과 관련되기 때문으로 보인다(Beristain, Paez, & González, 2000). 긍정적 사건일 때보다 부정적 사건을 경험했을 때 사회적 공유가 증가한다는 연구들은 주로 개인주의적이고 서구화된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Croonenbergh et al., 1990; Rime, Mesquita, Philippot, & Boca, 1991; Vergara, 1993; Rime et al., 1998 재인용) 반면,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사회적 공유의 효과는 거의 검증되지 않았다. 조화를 가치 있게 여기는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부정적 정서가 비교적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소통된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통해 보면, 한국 사회에서도 부정적 정서를 타인과 드러내 놓고 공유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가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Matsumoto et al., 1998; Singh-Manoux &

Finkenauer, 2001; 이은경 외, 2009).

또 다른 해석은 사회적 위기사건들 중에는 그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이 사회적 낙인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간접 노출자들은 정서조절 전략으로서 사회적 공유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높아진 부정정서에 대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은 개인으로 하여금 사건에 보다 개인적인 중요성을 부여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지각된 직접 노출자들에게 사건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일은 간접 노출자들에 비해 긍정적 이득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실제 한국 사회 내 많은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은 그들의 경험을 알게 된 이웃에 의해 따돌림을 당하거나 친척관계에서 소외당하고 취업에서 불이익을 얻는 등 생활 전반에서 원치 않는 고통을 경험하거나 정치 사회적 여건 상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해 고통이 만성화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최정기, 2008; 오승용, 2011; 오수성, 2013; 김명희, 2014). 따라서 향후 연구는 문화적 차이에 따른 사회적 공유 방식의 차이가 사건 중심성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밝히고, 사회적 위기사건들의 직접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일을 촉진하는 요인과 방해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어야 하겠다.

정리하면, 두 집단 모두에서 정서적으로 강렬하게 기억되는 사회적 위기사건일수록 사회적으로 공유될 때 사건에 대한 의미부여 과정이 촉진되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건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 사건이 개인에게 어떤 정서를 야기하는가가 사회적 공유, 사건 중심성과 맺는 관계는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지각된 직접 노출집단에서는 사회적 위기사건을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활발하게 공유하지만, 부정적으로 지각된다면 공유 수준은 유의하게 감소하고 있었다. 사회적 공유가 사건 중심성과 상당한 수준으로 정적 관련이 있다고 볼 때, 직접 노출 노출집단에게는 사건을 보다 긍정적인 방식으로

바라보고 지각하게 돕는 것이 사회적 공유를 촉진하고 더불어 사건에 개인적 의미를 부여할 기회를 높이고, 개인적 삶의 내러티브에 통합시킬 가능성 역시 증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간접 노출집단에 있어서는 사회적 위기사건을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우에 사회적 공유를 통하지 않고도 사건 중심성을 촉진하고 있었다. 즉, 이들에게도 사건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돕는 것이 사건에 대한 의미 형성과정을 촉진하게 할 수 있지만, 지각된 직접 노출집단과 달리 독특한 점은 다른 사람과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개인적 의미를 만드는 과정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공유는 기억을 재구성하고 기억과 관련된 정서를 조절하는 전략으로 기능하고 스트레스에 적응할 수 있는 인지적, 정서적 과정을 촉진함으로써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의미를 형성하도록 돕는 행위이다(Rimé, 2009; Lepore, Ragan, & Jones, 2000; Nils & Rimé, 2012; 이주일 외, 1997). 사회적 공유의 이런 기능에 근거하여 본 연구모델을 이해해 보면, 지각된 직접 노출집단이 간접 노출집단보다 사회적 공유를 통해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거나 타인의 평가를 참조점 삼아 개인적 의미를 부여할 기회를 높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위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의 주요 위기사건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의 심리적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의 트라우마 연구들이 사건을 직접 노출한 이들의 심리적 경험을 연구하거나 개인 외상(personal trauma)만을 대상으로 했거나, 부정적 사건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심리내적 요인에 국한해서 이루어져 온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함이었다.

사회적 위기는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실제 많은 사회적 위기들이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전 구성원의 심리적 환경에까

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사건에 직접 노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사건에 대한 기억이 자신의 삶과 정체성을 통합하는 과정에 중요한 경험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이 과정을 사회적 공유가 중요하게 매개하고 있다는 점도 검증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 위기사건들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런 기억을 공유함으로써 개인은 사건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의미 재고 기회를 갖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회적 위기에 대한 개인적 의미 만들어낼 기회를 증가시키는 데 사회적 공유가 상당한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위기사건에 대한 기억이 정서적으로 강렬할수록 사건 중심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회적 공유의 역할이 더욱 중요했다.

사회적 공유가 사건 중심성을 촉진한다는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특정 한 사회적 사건이 개인적 삶 속에 중요한 경험으로 인식될수록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발견해 낼 수 있는 기회 역시 많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 공유를 통해 특정 사건과 관련된 정서를 상호 교환하는 일은 ‘우리’가 공동의 작업(task)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 특성을 결정짓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런 과정은 집단적 행동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Lawler, 2003; Drury et al., 2005). 정서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일이 공감, 사회적 지지, 사회 통합을 강화하며 사회에 대한 긍정적 신념이나 기본 가정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 역시 이를 지지하고 있다(Nolen-Hoeksema & Davis, 1999; Paez et al., 2007). 결국, 사회적 위기는 공적으로 논의되고 사적으로 가까운 타인과 공유됨으로써 그에 대한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검증된 것이다. 그러나 사건 중심성이 가진 또 다른 측면을 고려한다면, 사회적 공유가 활발하게 됨으로써 사건 중심성이 촉진되는 일은 그만큼 심리적

증상 역시 증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건 중심성을 촉진하는 일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인가 아닌가는 다른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후속 연구를 통해 증가된 사건 중심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Zech & Rime, 2005). 예를 들면, 사회적 공유를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 원치 않게 하게 되는지, SNS를 통한 공유가 실질적 관계에서의 공유와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공유하는 대상과의 친밀도에 따라 사건 중심성의 이후 경로가 다른지 등 사회적 공유의 내용을 보다 질적으로 구분하여 본 연구 모형을 재검증해 보는 것이다. 더불어 이후 연구에서는 간접 노출집단에서 사건 중심성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이 심리적 증상 혹은 내적 성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을 활용하여 데이터 수집을 하였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집단으로 표집을 제한을 했다는 점이다. 또한 자기보고식 설문은 가지는 한계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위기사건 유형별로 직접 노출에 내포된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 연구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려움인데, 특정 사건의 생존자가 한 명도 없는 경우, 어떤 사람들을 직접 노출자 혹은 직접 피해자라고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였고, 직접 노출에 내포된 현상학적 의미가 중요하다는 연구자의 판단으로 지각된 직접 노출자들을 분석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에 추가 연구에서는 지각된 직접 경험자들과 사건의 직접 피해자들의 기억특성과 사건 중심성 간의 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세대 별 차이, 남녀 차이, 사건 별 차이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 결과를 좀 더 심화 확장

할 수 있는 연구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특히 본 연구의 데이터에서는 생생함, 정서강도, 부정 정서가, 사건 중심성 수준에서 유의하게 연령별 차이가 있었으며($F=13.018, p=.000; F=4.641, p=.001; F=7.478, p=.00; F=7.006, p=.000$), 성별의 경우는 생생함, 부정 정서가, 사건 중심성 수준에서 성별 차이가 유의했으며($t=2.138, p=.033; t=-4.268, p=.000; F=3.885, p=.000$) 생생함, 사건 중심성 수준은 남성의 평균값이, 부정 정서는 여성의 평균값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연령과 성별에서의 차이가 본 연구 모형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그리고 외국 연구들의 결과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윤미혜, 신희천, 2009; Rimé et al., 1991; Boals, 2010).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기사건들 간의 차이를 모형에 반영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회적 위기사건들, 예를 들면 재난, 사회·정치적 사건 등이 동일한 차원으로 묶어서 분석되었지만 재난 사건과 달리 사회·정치적 사건들은 직접 노출자들이 사건에 대한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기를 원하더라도 이를 제한하는 사회적 압력이 상당히 클 수 있는 등 사건들이 가진 독특한 속성들이 구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공유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압력 등의 요인을 추가하여 공유하기의 메커니즘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를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건 목록 상에 긍정적인 사회적 위기보다 부정적 사회적 위기를 많이 포함시켰기 때문에 차후 연구에서는 긍정과 부정적 사건을 균형 있게 배치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넷째, 사회적 공유의 특징, 지연된 정도에 대한 추가 연구를 제안한다. 예를 들면, 공유 대상, 공유 대상과의 친밀도, 공유 지속 기간, 공유를 통해 어떤 측면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지각하는지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 외상 경험에 있어서 공유효과와 사회적 외상 경험의 공유효과를 비교해 볼

필요도 있다.

이런 제한점에도 본 연구는 사회적 위기사건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경우에도 사건의 영향력이 개인의 삶과 정체성을 변화시킬 만큼 크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이 과정을 사회적 공유가 중요하게 매개하고 있음을 검증함으로써 사회적 위기사건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많은 시민들의 심리적 안녕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불어 사회적 공유 행위에 내포된 회복적 효과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사회적 위기에 대한 시민적 대응 방식을 구축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명희 (2014). 외상의 사회적 구성: 한국전쟁 유가족들의 ‘가족 트라우마’와 복합적 과거청산. *사회와 역사*, 101, 311-352.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 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박지영 (2011). 한국형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의 구성 타당화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3(4), 33-57.
- 안현의, 주혜선, 심기선, 민지원 (2013). 한국판 기억 경험 질문지의 타당화. *상담학 연구*, 14(1), 401-422.
- 안현의, 주혜선 (201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된 자서전적 외상 기억의 조직화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1), 197-220.
- 오수성 (2013).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민주주의와 인권*, 13(1), 5-12.
- 오승용 (2011). 국가폭력과 가족의 피해-“인혁당 재건위”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역사학회*, 10(4), 199-238.
- 윤미혜, 신희천 (2009). 일상 사건의 공유를 통한

- 부부의 친밀감 발달과정: 지각된 배우자 반응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1), 17-32.
- 이은경, 서은국, Chu, T., Kim, H.J.S. & Sherma, D. K. (2009). 정서억제와 주관적 안녕감: 문화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1), 131-146.
- 이종관 (2003) 현상학적 지각이론과 가상현실에 대한 연구. *철학과 현상학 연구*, 21(11), 335-364.
- 이주일, 황석현, 한정원, 민경환 (1997). 정서의 체험 및 표현성이 건강과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1), 117-140.
- 조명숙, 이영호 (2011). 사건중심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3), 763-774.
- 최정기 (2008). 국가폭력과 트라우마의 발생 기제 - 광주 '5·18'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제와 사회*, 177, 58-78.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243-264.
- 황상민, 양진영 (2002). 한국사회의 세대집단에 대한 심리학적 탐색: 전이적 공존 관점을 통한 대학생 집단의 세대 이미지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3), 75-93.
- Berntsen, D., & Rubin, D. C. (2006). Centrality of event scale. A measure of integrating a trauma into one's identity and its relation to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 219-231.
- Berntsen, D., & Rubin, D. C. (2007). When a trauma becomes a key to identity: Enhanced integration of trauma memories predicts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1, 417-431.
- Beristain, C. M, Paez, D., & Gopez, J. L. (2000). Rituals, social sharing, silence, emotions and collective memory claims in the case of the Guatemalan genocide. *Psicothema*, 12, 117-130.
- Boals, A. (2010). Events that have become central to identity: Gender differences in the centrality of events scale for positive and negative event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4(1), 107-121.
- Boals, A. (2010). Autobiographical memories that have become central to identity: Gender differences in the Centrality of Events Scale for positive and negative event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4, 107-121.
- Boals, A., Steward, J. M., & Schuettler, D. (2010). Advancing our understanding of post traumatic growth by considering event centrality. *Journal of Loss and Trauma*, 15(6), 518-533.
- Boals, A., & Schuettler, D. (2009). PTSD symptoms in response to traumatic and non-traumatic events: The role of respondent perception and A2 criterion.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3, 1-5.
- Boals, A., & Schuettler, D. (2011). A double edged sword: Event centrality, PTSD and post traumatic growth.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5(5), 817-822.
- Briere, J., Elliott, D.M., Harris, K., & Cotman, A. (1995). Trauma symptom inventory psychometrics and association with childhood and adult victimization in clinical sampl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0(4), 387-401.
- Cheung, G. W., & Rensvold, R. B. (2002). Evaluating goodness-of-fit indexes for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233-255.
- Christophe, V., & Rimé, B. (1997). Exposure to the social sharing of emotion: Emotional impact, listener responses and the secondary social sharing.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7, 37-54.
- Croonenbergh, A., Rime, B., Boca, S., & Philippot, P. (1990). *Partage social et ruminant mentale*

- dans une population Meditteraneenne: Comparision de Sujets Depressifs et de Sujets Normaux.*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Louvain, Louvain-la-Neuve, Belgium.
- Dalgleish, T., Meiser-Stedman, R., & Smith, P. (2005). Cognitive aspects of post traumatic stress reactions and their treatment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n empirical review and some recommendations. *Behavioural and Cognitive Psychotherapy*, 33, 459-486.
- Drury, J., Cocking, C., Bealw, J., Hanson, C., & Rapley, F. (2005). The phenomenology of empowerment in collective act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4, 309-328.
- Figley, C. R. (1995). Compassion as secondary traumatic stress disorder: An overview. In C. R. Figley(Ed.). *Compassion Fatigue*. New York: Brunner/Mazel.
- Finkenauer, C., & Rimé, B. (1998). Socially shared emotional experiences vs. emotional experiences kept secret: Differential characteristic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7, 295-318.
- Green, M. (2004). Transportation Into Narrative Worlds: The Role of Prior Knowledge and Perceived Realism. *Discourse processes*, 38(2), 247-266.
- Hair, J. F. Jr., W. C. Black, B. J. Babin, & Anderson, R. E. (2010). *Multivariate data analysis*, 7th ed., Prentice-Hall International.
- Lepore, S. J., Ragan, J. D., & Jones, S. (2000). Talking facilitates cognitive-emotional processes of adaptation to an acute stress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499-508.
- Luminet, O., Bouts, P., & Delie, F. (2000). Social sharing of emotion following exposure to a negatively valenced situation. *Cognition and emotion*, 14(5), 661-688.
- Matsumoto, D., Takeuchi, S., Andayani, S., Kouznetsova, N., Krupp, D. (1998). The contribution of individualism vs. collectivism to cross national differences in display rules.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 147-165.
- McAdams, D. P. (2001). The psychology of life storie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5, 100-122.
- Nils, F., and Rimé, B. (2012). Beyond the myth of venting: Social sharing modes determine emotional and social benefits from distress disclosur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2(6). 672-681.
- Nolen-Hoeksema, S., & Davis, C. G. (1999). Thanks for sharing that: ruminators and their social support network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4), 801-814.
- Paez, D., Basabe, N., Ubillos, S., & Gonzalez-Castro, J. L. (2007). Social sharing, participation in Demonstrations, emotional climate, and coping with collective violence after the march 11th madrid bombing. *Journal of social issues*, 63(2), 323-337.
- Rimé, B., Mesquita, B., Philippot, P., & Boca, S. (1991). Beyond the emotional event: Six studies on the social sharing of emotion. *Cognition and Emotion*, 5, 435-465.
- Rimé, B., Philippot, P., Boca, S., & Mesquita, B. (1992). Long lasting cognitive and social consequences of emotion: social sharing and rumination.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3, 225-258.
- Rimé, B., Finkenauer, C., Luminet, O., Zech, E., & Philippot, P. (1998). Social sharing of emotion: New evidence and new question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9, 145-189.
- Rimé, B. (2007). The social sharing of emotion as an interface between individual and collective processes in the construction of emotional climates. *Journal of social issues*, 63, 307-322.
- Rimé, B. (2009). Emotion elicits the social sharing of

- emotion: Theory and empirical review. *Emotion Review*, 1(1), 60-85.
- Rubin, D., Feldman, M., & Beckham, J. (2003). Reliving, emotions, and fragmentation in the autobiographical memories of veterans diagnosed with PTSD.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8, 17-35.
- Rubin, D. C. (2005). A basic-systems approach to autobiographical memor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2), 79-83.
- Schuettlera, D., & Boals, A. (2011). The Path to Post traumatic Growth Versus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Contributions of Event Centrality and Coping. *Journal of Loss and Trauma: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Stress & Coping*, 16(2), 180-194.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 422-445.
- Singh-Manoux, A., Finkenauer, C. (2001) Cultural variations in social sharing of emotions an intercultural perspectiv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2(6), 647-661.
- Steffen, V. (1997). Life stories and shared experience. *Social science & medicine*, 45(1), 99-111.
- Stern, D. N. (2000). *Interpersonal world of the infant: A view from psychoanalysis and development psychology*. Basic Books.
- Stiles, W. B. (1987). I have to talk to somebody. In *Self-disclosure* (pp.257-282). Springer US.
- Sutin, A. R., & Robins, R. W. (2007). Phenomenology of autobiographical memories: The Memory Experiences Questionnaire. *Memory*, 15(4), 390-411.
- Vergara, A. (1993). Sex0 e identidad de genero: Diferencias en el conomiento social de las emociones en el modo de compartirlas [*Sex and gender identity: Differences in social knowledge on emotions and in ways of sharing the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dad del Pais Vasco, San Sebastian, Spain.
- Wilson, P., & Keane, T. M. (2004). *Assessing psychological trauma and PTSD* (2n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Zech, E., & Rime, B. (2005). Is Talking about an Emotional Experience Helpful? Effects on Emotional Recovery and Perceived Benefits.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12, 270-287.
- 1 차원고접수 : 2015. 04. 01.
수정원고접수 : 2015. 06. 07.
최종게재결정 : 2015. 06. 30.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har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emory Characteristics and Event Centrality Regarding Social crisis:
Comparison between Perceived Direct Exposure Group and
Indirect Exposure Group**

Na-Bin Lee

Moon-Kyung Min

Hyun-Nie Ahn

Hye-Jung Cheon

Ewha Womans University

When societal crises occur(e.g., natural disasters, politically motivated assassination, or mass killings during anti-government movements), people express their thoughts and emotions with others in person or via social media. This is referred to as social sharing. Our study aimed to find out how social sharing mediates the memory of such major events and the individuals' capacity to integrate those events into their personal identity(i.e., event centrality). Specifically, we explored the differences among memory characteristics (vividness, emotional intensity, and emotional valence) as they are mediated by social sharing which eventually may help or hinder the individual to integrate those events into their personal lives. We also hypothesized that there would be a difference between the individuals who perceive that they directly experienced the event (e.g., had been present at the scene, was a victim or knew the victim closely) versus those who were indirectly affected (e.g., watched on the news). We developed a questionnaire of Korean major societal events experience, and used the scales from Memory Experience Questionnaire (Sutin & Robins, 2007) and Central Event Scale (Bernsten & Rubin, 2006) to test for our hypotheses. A perceived direct exposure group was n=286, and indirect exposure group was n=532. Results from the multi-group analysi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howed that social sharing fully mediated vividness and the event centrality in a indirect exposure group only. And social sharing partially mediated emotional intensity and event centrality in both groups. Especially, in a perceived direct exposure group, the effect of emotional intensity on social sharing is more high than a indirect exposure group. In the case of negative emotional valence, a perceived direct exposure group showed full mediation effect whereas indirect exposure group did not. Further discussion is included regarding.

Keywords : social sharing, memory experience of social crisis of Korea, centrality of event, the mediating effect, multi-group analysis